

한국관에 전시하는 보따리 작가 김수자

“나를 철저하게 비워낸 뿐”

1일 베니스 자르디니 공원에 위치한 한국관 앞에는 각양각색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전시장에 들어가려면 신발을 벗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시장 앞에 줄을 선 외국인들은 차례가 되면 군 말 없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안에 들어간다. 제55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단독 작가인 김수자 씨(56)가 만들어낸 진풍경이다.

신발을 벗어야 되는 것은 전시장 바닥이 모두 거울로 깔려 있기 때문이다. 1995년 한국관 설립 당시부터 통유리 건축으로 ‘악명’ 높은 전시장 안에는 온통 거울과 유리벽뿐이다. 원래는 나무바닥이었지만 전시를 위해 특별히 거울을 깔았다. 그런데 막상 벽에 걸린 작품도, 바닥에 놓인 설치 작품도 없다. 텅 빈 공간 안에는 무지갯빛 스펙트럼이 펼쳐질 뿐이다. 반투명 필름으로 유리벽을 싼 덕에 빛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빛내며 관람객 머리에 쏟아진다.

빛과 거울이 생성하는 무한의 이미지에 취한 사이 작가의 숨소리로 이뤄진 9분짜리 허밍 사운드가 귓가에 닿는다. 강렬한 빛에는 어둠이 공존하는 법. 전시장 한쪽에 마련된 자그마한 암실에는 3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분간 침침한 어둠에 갇히게 된다. 작가는 “어둠의 공간은 곧 무덤이자 자궁”이라며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숨소리와 내면에 집중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암실에서 나와 빛을 마주



하는 순간 관람객은 마치 다시 태어나는 느낌을 받는다.

전시를 기획한 김승덕 커미셔너는 “무언가를 넣거나 빼지 않고 그저 반투명 필름으로 한국관을 보따리처럼 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시장의 작품은 작가가 새롭게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햇빛과 어둠, 숨소리다.

고은 시은은 “작가든 큐레이터든 비엔날레라는 공간에서는 서로 튀려고 강력한 자아를 분출하기 마련인데 자신을 비운 것이 대단하다”고 평했다.

작가는 “나를 철저하게 비워낸 것은 자신감과 비전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라며 “한국관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책으로 바꾸었다”고 털어놨다.

그의 역발상은 이미 외국 관람객들에게 흥미로운 전시로 각인되고 있다.